**앙굴리말라경**

(Aṅgulimāla suttaṃ- To Aṅgulimāla- 앙굴리말라의 경, 맛지마니까야 M86, 전재성님역)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싸왓티 시의 제따와나에 있는 아나타삔디까 승원에 계셨다.

2.

그 때 꼬살라 국왕 빠쎄나디의 영토에 앙굴리말라라는 이름의 흉적이 있었다. 그는 잔인하여 손에 피를 묻히고 살육을 일삼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자비가 없었다. 그 때문에 마을은 마을이 아니게 되었고 도시는 도시가 아니게 되었고 나라는 나라가 아니게 되었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또 죽여서 그 손가락으로 화관을 만들었다.

3.

이때에 세존께서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발우와 가사를 들고 싸왓티로 탁발을 하러 들어가셨다. 싸왓티에서 탁발을 마치고 식후에 탁발에서 돌아와 깔개를 정리하고 발우와 가사를 들고 흉적 앙굴리말라가 있는 곳을 향해서 큰 길을 걸었다.

4.

길을 지나던 소치는 자, 가축을 키우는 자, 경작하는 자들이 세존께서 흉적 앙굴리말라가 있는 곳을 향해서 큰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수행자여,

이 길로 가지 마십시오. 수행자여, 이 길에는 앙굴리말라라는 흉적이 있습니다. 그는 잔인하여 손에 피를 묻히고 살육을 일삼고 생명에 대한 자비가 없습니다. 그는 마을과 도시와 지방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는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으로 화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행자여, 이 길을 열 사람, 스무 사람, 서른 사람, 마흔 사람, 쉰 사람이 모이고 모여서 가도, 오히려 그들은 흉적인 앙굴리말라의 손아귀에 놓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말했음에도 세존께서는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다.

5.

그러자 두 번째에도 길을 지나던 소치는 자, 가축을 키우는 자, 경작하는 자들이 세존께서 흉적 앙굴리말라가 있는 곳을 향해서 큰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보고서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수행자여,

이 길로 가지 마십시오. 수행자여, 이 길에는 앙굴리말라라는 흉적이 있습니다. 그는 잔인하여 손에 피를 묻히고 살육을 일삼고 생명에 대한 자비가 없습니다. 그는 마을과 도시와 지방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는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으로 화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행자여, 이 길을 열 사람, 스무 사람, 서른 사람, 마흔 사람, 쉰 사람이 모이고 모여서 가도, 오히려 그들은 흉적인 앙굴리말라의 손아귀에 놓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말했음에도 두 번째에도 세존께서는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다.

6.

그러자 세 번째에도 길을 지나던 소치는 자, 가축을 키우는 자, 경작하는 자들이 세존께서 흉적 앙굴리말라가 있는 곳을 향해서 큰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보고서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수행자여,

이 길로 가지 마십시오. 수행자여, 이 길에는 앙굴리말라라는 흉적이 있습니다. 그는 잔인하여 손에 피를 묻히고 살육을 일삼고 생명에 대한 자비가 없습니다. 그는 마을과 도시와 지방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는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으로 화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행자여, 이 길을 열 사람, 스무 사람, 서른 사람, 마흔 사람, 쉰 사람이 모이고 모여서 가도, 오히려 그들은 흉적인 앙굴리말라의 손아귀에 놓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말했음에도 세존께서는 세 번째에도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다.

7.

흉적 앙굴리말라는 세존께서 멀리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이와 같이 생각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참으로 이전에 없었던 일이다. 이 길을 열 사람, 스무 사람, 서른 사람, 마흔 사람, 쉰 사람이 모이고 모여서 가도, 오히려 그들은 나의 손아귀에 놓인다. 그런데 이 수행자는 혼자서 동료도 없이 생각컨대 운명에 이끌린 듯이 오고 있다. 내가 어찌 이 수행자의 목숨을 빼앗지 않겠는가?’

8.

흉적 앙굴리말라는 칼과 방패를 잡고 활과 화살을 메고 세존의 뒤쪽으로 바싹 쫓아왔다. 그때에 세존께서는 초월적인 힘을 행사하여 흉적 앙굴리말라는 온 힘을 다해 달려도 보통 걸음으로 걷고 있는 세존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흉적 앙굴리말라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참으로 이전에 없었던 일이다. 나는 일찍이 질주하는 코끼리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나는 일찍이 질주하는 말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나는 일찍이 질주하는 수레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나는 일찍이 질주하는 사슴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나는 온 힘으로 달려도 보통 걸음으로 걷고 있는 이 수행자를 따라잡을 수 없다.’

9.

 그는 멈추어서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수행자여, 멈추어라. 수행자여, 멈추어라.”

“앙굴리말라여, 나는 멈추었다. 너도 멈추어라.”

그러자 흉적 앙굴리말라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이 수행자는 싸끼야 족의 아들로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주장하는 자이다. 그런데 이 수행자는 자신은 걸으면서 ‘나는 멈추었다. 앙굴리말라여, 너도 멈춰라.’라고 말한다. 내가 이 수행자에게 그것에 대하여 물어보면 어떨까?’

10.

그래서 앙굴리말라는 세존께 시로써 이와 같이 물었다.

“수행자여, 그대는 가면서 ‘나는 멈추었다.’고 말하고

멈춘 나에게 ‘그대는 멈추어라.’고 말한다.

수행자여 나는 그대에게 그 의미를 묻는다.

어찌하여 그대는 멈추었고 나는 멈추지 않았는가?”

11.

“앙굴리말라여, 나는 언제나

일체의 살아 있는 존재에 폭력을 멈추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살아 있는 생명에 자제함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멈추었고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

12.

“오! 드디어 이 수행자가 위대한 선인으로

나를 위해 이 커다란 숲에 나타나셨네.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준 그대의 시를 듣고

나는 참으로 영원히 악함을 버렸습니다.”

13.

“이와 같이 해서 흉적 앙굴리말라는 칼과 흉기를

깊이 갈라진 틈의 구덩이에 던져 버리고

흉적은 바르게 잘 가신 분의 두 발에 예경하니

거기서 그는 출가를 요청했네.

부처님은 참으로 자비로운 위대한 선인

신들과 사람들의 스승이네.

이때에 ‘오라! 수행승이여.’라고 말씀하시니

그는 수행승이 되어 있었다네.”

14.

그리고 세존께서는 앙굴리말라를 수행자로 데리고 싸왓띠로 떠났다. 차츰 유행하면서 싸왓띠에 도착했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싸왓띠 제따와나의 아나타삔디까 승원에 머무셨다.

15.

그런데 그 때에 꼬쌀라의 국왕 빠쎄나디의 내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끄럽게 떠들었다.

“대왕이여,

흉적 앙굴리말라가 그대의 영토에 있습니다. 그는 잔인하여 손에 피를 묻히고 살육을 일삼고 생명에 대한 자비가 없습니다. 그는 마을과 도시와 지방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는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뼈로 목걸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왕은 그를 막으십시오.”

16.

그래서 꼬쌀라 국왕 빠쎄나디는 대낮에 오백 명의 기마부대를 데리고 싸왓띠를 나서서 승원이 있는 곳으로 출발했다. 수레로 갈 수 있는 곳까지 가고 그 후에는 수레에서 내려서 걸어서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존께 인사를 하고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한쪽으로 물러앉은 꼬쌀라 국왕 빠쎄나디에게 세존에서는 이와 같이 말했다.

“대왕이여,

왕께서는 어쩐 일입니까? 마가다국의 왕 쎄니야 빔비싸라가 그대를 공격했습니까? 또는 웨쌀리의 리차위 족들이나 다른 적대적인 왕들이 그대를 공격했습니까?”

“세존이시여,

마가다국의 왕 쎄니야 빔비싸라가 나를 공격한 것도 웨쌀리의 리차위 족들이나 다른 적대적인 왕들이 나를 공격한 것도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흉적 앙굴리말라가 나의 영토에 있습니다. 그는 잔인하여 손에 피를 묻히고 살육을 일삼고 생명에 대한 자비가 없습니다. 그는 마을과 도시와 지방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는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뼈로 목걸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는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17.

“그러나 대왕이여,

앙굴리말라가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를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여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을 삼가고, 어리석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삼가고, 하루 한 끼 식사를 하고, 청정한 삶을 살고, 계율을 지키고, 착하고 건전한 가르침을 따른다면, 그대는 그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존이시여,

우리는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일어서서 환영하고 자리를 내어 초대하고 그에게 의복과 음식과 깔개와 필수약품을 선물하고 그를 법답게 보살피고 보호하고 수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그와 같이 계행이 없고 악하고 불건전한 자에게 이와 같은 계행에 의한 절제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18.

이때에 존자 앙굴리말라가 세존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오른쪽 팔을 펴며 꼬쌀라 국왕 빠쎄나디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대왕이여, 이 수행승이 앙굴리말라입니다.”

그러자 꼬쌀라 국왕 빠쎄나디는 두려움에 떨고 전율하였고 그에게 몸의 털이 솟구쳤다. 이때에 세존은 꼬쌀라 국왕 빠쎄나디가 두려움에 떨고 전율하며 그에게 몸의 털이 솟구치는 것을 알고 꼬쌀라 국왕 빠쎄나디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대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그를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19.

그러자 왕에게서 두려움과 전율과 몸의 털이 솟구침이 진정되었다. 그는 존자 앙굴리말라에게 가서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 존귀한 자가 정말 앙굴리말라입니까?”

“대왕이여,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존귀한 자의 아버지는 어떠한 성을 가졌고 그 어머니는 어떠합니까?”

“대왕이여, 아버지는 각가이고 어머니는 만따니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존귀한 자, 각가 만따니뿟따를 만족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존귀한 자, 각가 만따니뿟따를 위하여 의복과 음식과 깔개와 필수약품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이때에 존자 앙굴리말라는 숲에서 거주하고 탁발을 하며 누더기 옷을 입고 세 벌 옷을 가지고 살았다. 존자 앙굴리말라는 꼬쌀라 국왕 빠쎄나디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대왕이여, 충분합니다. 저는 단지 세 벌 옷으로 만족합니다.”

21.

그러자 꼬쌀라 국왕 빠쎄나디는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존께 인사를 하고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한쪽으로 물러앉은 그 꼬쌀라 국왕 빠쎄나디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세존께서는 다스릴 수 없는 자를 다스리고, 고요하게 할 수 없는 자를 고요하게 하시고, 열반에 들 수 없는 자를 열반에 들게 만듭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들이 몽둥이와 칼로 다스리는 자를 세존께서는 몽둥이도 없이, 칼도 없이 다스립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들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우리들은 할 일이 많고 바쁩니다.”

“대왕이여, 그렇다면, 그대는 지금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때를 따르십시오.”

그러자 꼬쌀라 국왕 빠쎄나디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오른쪽을 돌아 그곳을 떠났다.

22.

존자 앙굴리말라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발우와 가사를 들고 싸왓띠로 탁발을 하러 들어갔다. 존자 앙굴리말라는 싸왓띠에서 차례로 탁발을 하면서 유행할 때에 어떤 부인이 난산하여 아기가 불구가 된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그는 생각했다.

‘오! 뭇 삶들은 얼마나 괴로운가? 참으로 뭇 삶들은 얼마나 괴로운가?’

23.

그리고 존자 앙굴리말라는 싸왓띠에서 탁발을 하고 식후에 탁발에서 돌아와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한쪽으로 물러앉아 존자 앙굴리말라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발우와 가사를 들고 싸왓띠로 탁발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싸왓띠에서 차례로 탁발을 하면서 유행할 때에 어떤 부인이 난산하여 아기가 불구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저는 ‘오! 뭇 삶들은 얼마나 괴로운가? 참으로 뭇 삶들은 얼마나 괴로운가?’라고 생각했습니다.”

24.

“앙굴리말라여,

그렇다면, 그대는 지금 싸왓띠로 가라. 가서 그 부인에게 ‘자매여, 내가 태어난 이래 나는 의도적으로 뭇 삶의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실로 당신이 잘 되고 당신의 아이가 잘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라.”

“세존이시여, 저는 의도적으로 뭇 삶의 생명을 빼앗았는데, 저보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라는 말입니까?”

25.

“앙굴리말라여,

그렇다면, 그대는 지금 싸왓띠로 가라. 가서 그 부인에게 ‘자매여, 내가 고귀한 태어남으로 거듭난 이래 나는 의도적으로 뭇 삶의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실로 당신이 잘되고 당신의 아이가 잘되길 바랍니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라.”

“세존이시여, 알겠습니다.”

26.

존자 앙굴리말라는 세존께 대답하고 싸왓띠를 찾아갔다. 가서 그 부인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자매여,

내가 고귀한 태어남으로 거듭난 이래 내가 의도적으로 뭇 삶의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실함으로 당신이 잘되고 당신의 아이가 잘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인도 잘되고 태아도 잘되었다.

27.

그 후 존자 앙굴리말라는 홀로 떨어져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였다. 그는 오래지 않아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이 그러기 위해 올바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듯이 위없이 청정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

그는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알았다. 마침내 존자 앙굴리말라는 거룩한 분 가운데 한 분이 되었다.

28.

한때에 존자 앙굴리말라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발우와 가사를 들고 싸왓띠로 탁발을 하러 들어갔다. 그 때에 어떤 사람이 던진 흙덩이가 존자 앙굴리말라의 몸에 날아왔고, 어떤 사람이 던진 몽둥이가 존자 앙굴리말라의 몸에 날아왔고, 어떤 사람이 던진 돌덩이가 존자 앙굴리말라의 몸에 날아왔다. 그래서 존자 앙굴리말라는 머리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발우가 부서지고 옷이 찢어진 채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세존께서는 존자 앙굴리말라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존자 앙굴리말라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수행승이여,

그대는 인내하라. 수행승이여, 그대는 인내하라. 그대가 업의 과보로 수 년, 아니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지옥에서 받을 업보를 그대가 지금 여기서 받는 것이다.”

29.

그러자 존자 앙굴리말라는 홀로 떨어져 명상을 하며 해탈의 즐거움을 누렸다. 그 때에 그는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예전에는 방일하여도

지금은 방일하지 않은 자

그는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저질러진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덮으니

그는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참으로 젊은 수행승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는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나의 적들은 법문을 들어라.

나의 적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

나의 적들은 가르침으로 이끄는

훌륭한 사람들과 사귀어라.

나의 적들은 인욕을 설하고

원한이 없는 것을 찬양하는 자에게

올바른 때에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따라 수행하라.

이와 같이 하면 반드시

나를 해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네.

그는 최상의 평온을 얻어

약자이건 강자이건 수호한다.

관개하는 사람은 물꼬를 트고

활 만드는 자는 화살촉을 바로잡고

목수는 나무를 바로잡고

현자는 자신을 다스린다.

어떤 사람들은 몽둥이나

갈구리나 채찍으로 다스린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이

몽둥이 없이 칼 없이 다스려졌네.

예전에 살해하는 자였던 나는

이제는 살해하지 않는 자이네.

오늘 나에게 진실한 이름이 있으니

아무도 ‘해치지 않는 자’였네.

예전에 나는 흉적으로서

앙굴리말라라고 알려졌다.

커다란 폭류에 휩쓸렸으나

부처님께 안식처를 얻었네.

예전에 나는 손에 피를 묻히는

앙굴리말라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존재의 그물을 끊고

내가 귀의한 것을 보라.

이와 같이 나쁜 곳으로 이끄는

많은 악업을 짓고

아직 그 업보에 맞닥뜨리지만

부채 없이 음식을 즐기네.

어리석어 무지한 사람들은

오로지 방일에 탐닉한다.

슬기로운 자는 방일하지 않기를

마치 최상의 보물을 수호하듯 하네.

방일에 빠지지 말라

감각적인 쾌락에서 기쁨을 찾지 말라.

방일하지 않고 명상하는 자

크고 한없는 즐거움을 얻으리라.

밝혀진 가르침들 가운데

그 최상의 것에 나는 도달했다

내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나는 환영하여 거절하지 않네.

나는 세 가지 밝은 지혜를 얻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취했다.

내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나는 환영하여 거절하지 않네.

Suttantapiṭake
Majjhimanikāyo
Majjhimapaṇṇāsako
4. Rājavaggo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sambuddhassa.
2.4.6
86 Aṅgulimāla suttaṃ

Evaṃ me sutaṃ: ekaṃ samayaṃ bhagavā sāvatthiyaṃ viharati jetavane anāthapiṇḍikassa ārāme. Tena kho pana samayena rañño pasenadissa kosalassa vijite coro aṅgulimālo nāma hoti luddo lohitapāṇī hatapahate niviṭṭho adayāpanno pāṇabhutesu. Tena gāmāpi agāmā katā, nigamāpi [PTS Page 098] [\q 98/] anigamā katā, janapadāpi ajanapadā katā. So manusse vadhitvā vadhitvā aṅgulīnaṃ mālaṃ dhāreti. Atha kho bhagavā pubbanhasamayaṃ nivāsetvā pattacīvaraṃ ādāya sāvatthiṃ1 piṇḍāya pāvisi. Sāvatthiyaṃ piṇḍāya caritvā pacchābhattaṃ piṇḍapātapaṭikkanto senāsanaṃ saṃsāmetvā pattacīvaraṃ ādāya yena coro aṅgulimālo tena'ddhānamaggaṃ paṭipajji.

Addasaṃsu2 kho gopālakā pasupālakā kassakā pathāvino3 bhagavantaṃ yena coro aṅgulimālo tenaddhānamaggaṃ paṭipannaṃ disvāna bhagavantaṃ etadavocuṃ: mā samaṇa, etaṃ maggaṃ paṭipajji, etasmiṃ samaṇa, magge coro aṅgulimālo nāma luddo lohitapāṇī hatapahate niviṭṭho adayāpanno pāṇabhūtesu. Tena gāmāpi agāmā katā, nigamāpi anigamā katā, janapadāpi ajanapadā katā. So manusse vadhitvā vadhitvā aṅgulīnaṃ mālaṃ dhāreti. Etaṃ hi samaṇa, maggaṃ dasapi purisā vīsatimpi purisā tiṃsampi purisā cattārīsampi purisā paññāsampi purisā saṃharitvā saṃharitvā4 paṭipajjanti. Tepi corassa aṅgulimālassa hatthatthaṅgacchantī'ti5. Evaṃ vutte bhagavā tuṇhībhūto agamāsi.

Dutiyampi kho gopālakā pasupālakā kassakā pathāvino3 bhagavantaṃ etadavocuṃ: mā samaṇa, etaṃ maggaṃ paṭipajji, etasmiṃ samaṇa magge coro aṅgulimālo nāma luddo lohitapāṇī hatapahate niviṭṭho adayāpanno pāṇabhutesu. Tena gāmāpi agāmā katā, nigamāpi anigamā katā, janapadāpi ajanapadā katā. So manusse vadhitvā vadhitvā aṅgulīnaṃ mālaṃ dhāreti. Etaṃ samaṇa, maggaṃ dasapi purisā vīsatimpi purisā tiṃsampi purisā vattārisampi purisā paññāsampi purisā saṃharitvā saṃharitvā4 paṭipajjanti, tepi corassa aṅgulimālassa hatthatthaṅgacchantī'ti.5 Tatiyampi kho bhagavā tuṇhībhūto agamāsi.

--------------------------

1. Sāvatthiyaṃ-sīmu 2. Addasāsuṃ-machasaṃ,sīmu,[PTS] 3. Padhāvino-[PTS] syā. 4. Saṅkaritvā saṅkaritvā-machasaṃ ,saṅkaritvā saṅkaritvā-syā. 5. Hatthattaṃ gacchanti-sīmu. Hatthatthaṃ gacchanti-machasaṃ,syā, [PTS]

[BJT Page 518] [\x 518/]

Addasā kho coro aṅgulimālo bhagavantaṃ dūratova āgacchantaṃ, disvānassa etadahosi: acchariyaṃ vata bho abbhūtaṃ vata bho. Imaṃ hi maggaṃ dasapi purisā, vīsatimpi [PTS Page 099] [\q 99/] purisā, tiṃsampi purisā, cattārisampi purisā, paññāsampi purisā saṃharitvā saṃharitvā paṭipajjanti, tepi mama hatthatthaṅgacchanti. Atha ca panāyaṃ samaṇo eko adutiyo pasayha maññe āgacchati. Yannūnāhaṃ imaṃ samaṇaṃ jīvitā voropeyya'nti.

Atha kho coro aṅgulimālo asicammaṃ gahetvā dhanukalāpaṃ sannayahitvā bhagavantaṃ piṭṭhito piṭṭhito anubandhi. Atha kho bhagavā tathārūpaṃ iddhābhisaṅkhāraṃ abhiṅkhāsi1. Yathā coro aṅgulimālo bhagavantaṃ pakatiyā gacchantaṃ sabbatthāmena gacchanto na sakkoti sampāpuṇituṃ. Atha kho corassa aṅgulimālassa etadahosi: acchariyaṃ vata bho abbhūtaṃ vata bho, ahaṃ hi pubbe hatthimpi dhāvantaṃ anupatitvā gaṇhāmi, assampi dhāvantaṃ anupatitvā gaṇhāmi, rathampi dhāvantaṃ anupatitvā gaṇhāmi, migampi dhāvantaṃ anupatitvā gaṇhāmi. Atha ca panāhaṃ imaṃ samaṇaṃ pakatiyā gacchantaṃ sabbatthāmena gacchanto na sakkomi sampāpuṇitu'nti ṭhito bhagavantaṃ etadavoca: tiṭṭha samaṇa, tiṭṭha samaṇāti. Ṭhito ahaṃ aṅgulimāla, tvañca tiṭṭhāti.

Atha kho corassa aṅgulimālassa etadahosi: ime kho samaṇā sakyaputtiyā saccavādino saccapaṭiñño, atha ca panāyaṃ samaṇo gacchaṃyeva samāno evamāha2 ṭhito ahaṃ aṅgulimāla, tvañca tiṭṭhā'ti. Yannūnāhaṃ imaṃ samaṇaṃ puccheyyanti. Atha kho coro aṅgulimālo bhagavantaṃ gāthāya ajjhabhāsi:

Gacchaṃ vadesi samaṇa ṭhitomhi
Mamañca brūsi ṭhitaṃ aṭṭhitoti,
Pucchāmi taṃ samaṇa etamatthaṃ
Kathaṃ ṭhito tvaṃ ahamaṭṭhitomhī'ti?
Ṭhito ahaṃ 'aṅgulimāla sabbadā
Sabbesu bhūtesu nidhāya daṇḍaṃ,
Tuvañca pāṇesu asaññatosi
Tasmā ṭhitohaṃ tuvamaṭṭhitosī'ti.
[PTS Page 100] [\q 100/]
Cirassaṃ vata me mahito mahesī
Mahāvanaṃ samaṇoyaṃ paccupādi3,
Sohaṃ cirassāpi pahassaṃ4 pāpaṃ
Sutvāna gāthaṃ tava dhammayuttaṃ.
Itveva coro asiāvudhañca
Sobbhe papāte narake anvakāri5,
Avandi coro sugatassa pāde
Tattheva naṃ pabbajjaṃ ayāci.

--------------------------

1. Abhisaṅkhāresi-syā. 2. Gacchaṃyevāha- machasaṃ,syā,[PTS]

3. Mahāvanaṃ pāpuṇi saccavādi-machasaṃ mahāvanaṃ samaṇa paccupādi-syā, mahāvanaṃ samaṇoyaṃ paccavādi [PTS] 4. Pahāya-machasaṃ. Pajahissa-syā pahāssaṃ-sīmu, [PTS] 5. Akiri-machasaṃ. Manvakāri-syā.

[BJT Page 520] [\x 520/]

Buddho ca kho kāruṇiko mahesi
Yo satthā lokassa sadevakassa,
Tamehi bhikkhūti tadā avoca
Esova tassa ahu bhikkhubhāvo'ti.

Atha kho bhagavā āyasmatā aṅgulimālena pacchāsamaṇena yena sāvatthi tena cārikaṃ pakkāmi. Anupubbena cārikaṃ caramāno yena sāvatthi tadavasari. Tatra sudaṃ bhagavā sāvatthiyaṃ viharati jetavane anāthapiṇḍikassa ārāme. Tena kho pana samayena rañño pasenadissa kosalassa antepuradvāre mahājanakāyo santipatitvā uccāsaddo mahāsaddo hoti. Coro te deva, vijite aṅgulimālo nāma luddo lohitapāṇī hatapahate niviṭṭho adayāpanno pāṇabhūtesu. Tena gāmāpi agāmā katā, nigamāpi anigamā katā, janapadāpi ajanapadā katā, so manusse vadhitvā vadhitvā aṅgulīnaṃ mālaṃ dhāreti. Taṃ devo paṭisedhetu'ti.

Atha kho rājā pasenadi kosalo pañcamattehi assasatehi sāvatthiyā nikkhami. Divādivassa yenārāmo tena pāyāsi. Yāvatikā1 yānassa bhūmi, yānena gantvā yānā paccorohitvā pattikova yena bhagavā tenupasaṅkami, upasaṅkamitvā [PTS Page 101] [\q 101/] bhagavantaṃ abhivādetvā ekamantaṃ nisīdi. Ekamantaṃ nisinnaṃ kho rājānaṃ pasenadiṃ kosalaṃ bhagavā etadavoca: kinnu te maharāja, rājā māgadho seniyo bimbisāro kupito, vesālikā vā licchavī, aññe vā paṭirājāno'ti. Na kho me bhante, rājā māgadho seniyo bimbisāro kupito, napi vesālikā licchavī, napi aññe paṭirājāno. Coro me bhante, vijite aṅgulimālo nāma luddo lohitapāṇi hatapahate niviṭṭho adayāpanno pāṇabhūtesu. Tena gāmāpi agāmā katā, nigamāpi anigamā katā, janapadāpi ajanapadā katā. So manusse vadhitvā vadhitvā aṅgulīnaṃ mālaṃ dhāreti. Tāhaṃ bhante paṭisedhissāmīti.

Sace pana tvaṃ mahārāja, aṅgulimālaṃ passeyyāsi kesamassuṃ ohāretvā kāsāyāni vatthāni acchādetvā agārasmā anagāriyaṃ pabbajitaṃ, virataṃ pāṇātipātā virataṃ adinnādānā virataṃ musāvādā ekabhattikaṃ brahmacāriṃ sīlavantaṃ kalyāṇadhammaṃ, kinti naṃ kareyyāsīti? Abhivādeyyāma vā mayaṃ bhante, paccuṭṭheyyāma vā āsanena vā nimanteyyāma abhinimanteyyāmapi naṃ cīvarapiṇḍapātasenāsanagilānapaccayabhesajjaparikkhārehi, dhammikaṃ vā assa ra rakkhāvaraṇaguttiṃ saṃvidaheyyāma kuto panassa bhante, dussīlassa pāpadhammassa evarūpo sīlasaṃyamo bhavissatīti? Tena kho pana samayena āyasmā aṅgulimālo bhagavato avidūre nisinno hoti. Atha kho bhagavā dakkhiṇaṃ bāhuṃ2 paggahetvā rājānaṃ pasenadiṃ kosalaṃ etadavoca: eso maharāja, aṅgulimālo'ti.

--------------------------

1.Yāvatiko- [PTS] 2. Dakkhiṇabāhaṃ- [PTS]

[BJT Page 522] [\x 522/]

Atha kho rañño pasenadissa kosalassa ahudeva bhayaṃ ahuchamhitattaṃ ahu lomahaṃso. Atha kho bhagavā rājānaṃ pasenadiṃ kosalaṃ bhītaṃ saṃviggaṃ lomahaṭṭhajātaṃ viditvā rājānaṃ pasenadiṃ kosalaṃ etadavoca: mā bhāyi maharāja, mā bhāyi mahārāja, natthi te ato bhayanti. Atha kho rañño pasenadissa kosalassa yaṃ ahosi bhayaṃ [PTS Page 102] [\q 102/] vā chamhitattaṃ vā lomahaṃso vā, so paṭippassamhī. Atha kho rājā pasenadi kosalo yenāyasmā aṅgulimālo tenupasaṅkami. Upasaṅkamitvā āyasmantaṃ aṅgulimālaṃ etadavoca: ayyo no bhante, aṅgulimāloti? Evaṃ mahārājāti. Kathaṃgotto bhante, ayyassa pitā, kathaṃgottā mātāti? Gaggo kho mahārāja, pitā, mantānī mātāti. Abhiramatu bhante, ayyo gaggo mantāniputto. Ahamayyassa gaggassa mantāniputtassa ussukkaṃ karissāmi cīvarapiṇḍapātasenāsanagilānapaccayabhesajjaparikkhārānanti1.

Tena kho pana samayena āyasmā aṅgulimālo āraññako hoti piṇḍapātiko paṃsukuliko tecīvariko. Atha kho āyasmā aṅgulimālo rājānaṃ pasenadiṃ kosalaṃ etadavoca: alaṃ mahārāja, paripuṇṇaṃ me ticīvaranti atha kho rājā pasenadi kosalo yena bhagavā, tenupasaṅkami, upasaṅkamitvā bhagavantaṃ abhivādetvā ekamantaṃ nisīdi. Ekamantaṃ nisinno kho rājā pasenadi kosalo bhagavantaṃ etadavoca: acchariyaṃ bhante, abbhūtaṃ bhante, yāvañcidaṃ bhante, bhagavā adantānaṃ dametā asantānaṃ2 sametā aparinibbutānaṃ3 parinibbāpetā. Yaṃ hi mayaṃ bhante, nāsakkhimhā daṇḍenapi satthenapi dametuṃ. So bhagavatā adaṇḍena asattheneva4 danto. Handa ca dāni5 mayaṃ bhante, gacchāma bahukiccā mayaṃ bahukaraṇiyāti. Yassadāni tvaṃ mahārāja, kālaṃ maññasīti. Atha kho rājā pasenadi kosalo uṭṭhāyāsanā bhagavantaṃ abhivādetvā padakkhiṇaṃ katvā pakkāmi.

Atha kho āyasmā aṅgulimālo pubbanhasamayaṃ nivāsetvā pattacīvaraṃ ādāya sāvatthiṃ6 piṇḍāya pāvisi. Addasā kho āyasmā aṅgulimālo sāvatthiyaṃ sapadānaṃ piṇḍāya caramāno aññataraṃ itthiṃ mūḷhagabbhaṃ vighātagabhaṃ7 disvānassa [PTS Page 103] [\q 103/] etadahosi: kilissanti vata bho sattā kilissanti vata bho sattā'ti. Atha kho āyasmā aṅgulimālo sāvatthiyaṃ piṇḍāya caritvā pacchābhattaṃ piṇḍapātapaṭikkanto yena bhagavā tenupasaṅkami, upasaṅkamitvā bhagavantaṃ abhivādetvā ekamantaṃ nisīdi, ekamantaṃ nisinno kho āyasmā aṅgulimālo bhagavantaṃ etadavoca: idhāhaṃ bhante, pubbanhasamayaṃ nivāsetvā pattacīvaraṃ ādāya sāvatthiṃ6 piṇḍāya pāvisiṃ addasaṃ kho ahaṃ bhante, sāvatthiyaṃ sapadānaṃ piṇḍāya caramāno aññataraṃ itthiṃ mūḷhagabbhaṃ vighātagabbhaṃ7 disvāna me etadahosi: kilissanti vata bho sattā, kilissanti vata bho sattā'ti.

-------------------------

1. Parikkhārehīti-sīmu. 2. Asamentānaṃ-syā 3. Apparinibbutānaṃ-syā 4. Asatthena-syā 5. Handadāni-syā,[PTS] 6. Sāvatthiyaṃ-sīmu,machasaṃ 7. Visātagabbhaṃ- [PTS]

[BJT Page 524] [\x 524/]

Tena hi tvaṃ aṅgulimāla, yena sā itthi1 tenupasaṅkama, upasaṅkamitvā taṃ itthiṃ evaṃ vadehi: yatohaṃ bhagini jāto2 nābhijānāmi sañcicca pāṇaṃ jīvitā voropetā. Tena saccena sotthi te hotu, sotthi gabbhassā'ti. So hī nūna me bhante, sampajānamusāvādo bhavissati, mayā hi bhante, bahū sañcicca pāṇā jīvitā voropitāti.

Tena hi tvaṃ aṅgilimāla, yena sā itthi itthināparaṃ tenupasaṅkama. Upasaṅkamitvā taṃ itthiṃ evaṃ vadehi: yatohaṃ bhagini, ariyāya jātiyā jāto nābhijānāmi sañcicca pāṇaṃ jīvitā voropetā. Tena saccena sotthi te hotu sotthi gabbhassā'ti. Evaṃ bhanteti kho āyasmā aṅgulimālo bhagavato paṭissutvā yena sā itthi1, tenupasaṅkami, upasaṅkamitvā taṃ itthiṃ etadavoca: yatohaṃ bhagini, āriyāya jātiyā jāto, nābhijānāmi sañcicca pāṇaṃ jīvitā voropetā, tena saccena sotthi te hotu sotthi gabbhassā'ti. Atha kho sotthi itthiyā ahosi3 sotthi gabbhassa.

Atha kho āyasmā aṅgulimālo eko vūpakaṭṭho appamatto ātāpī pahitatto viharanto na cirasseva yassatthāya kulaputtā sammadeva agārasmā anagāriyaṃ pabbajanti. Tadanuttaraṃ brahmacariyaṃ pariyosānaṃ diṭṭheva dhamme sayaṃ abhiññā sacchikatvā upasampajja vihāsi. Khīṇā jāti, vusita brahmacariyaṃ, kataṃ karaṇīyaṃ, nāparaṃ [PTS Page 104] [\q 104/] itthattāyāti abbhaññāsi. Aññataro ca kho panāyasmā aṅgulimālo arahataṃ ahosi.

Atha kho āyasmā aṅgulimālo pubbanhasamayaṃ nivāsetvā pattacīvaraṃ ādāya sāvatthiṃ piṇḍāya pāvisi, tena kho pana samayena aññenapi leḍḍu khitto āyasmato aṅgulimālassa kāye nipatati, aññenapi daṇḍo khitto āyasmato aṅgulimālassa kāye nipatati, aññenapi sakkharā khittā āyasmato aṅgulimālassa kāye nipatati. Atha kho āyasmā aṅgalimālo bhinnena sīsena lohitena galantena bhinnena pattena vipphālitāya4 saṅghāṭiyā yena bhagavā tenupasaṅkami. Addasā kho bhagavā āyasmantaṃ aṅgulimālaṃ dūratova āgacchantaṃ, disvāna āyasmantaṃ aṅgulimālaṃ etadavoca: adhivāsehi tvaṃ brāhmaṇa, adhivāsehi tvaṃ brāhmaṇa, yassa kho tvaṃ kammassa vipākena bahūni vassāni bahūni vassasatāni bahūni vassasahassāni niraye pacceyyāsi. Tassa tvaṃ brāhmaṇa, kammassa vipākaṃ diṭṭheva dhamme paṭisaṃvedesī'ti. Atha kho āyasmā aṅgulimālo rahogato paṭisallīno vimuttisukhapaṭisaṃvedi tāyaṃ velāyaṃ imaṃ udānaṃ udānesi:

Yo ca pubbe pamajjitvā pacchā so nappamajjati,
So imaṃ lokaṃ pabhāseti abbhā muttova candimā.

-------------------------

1. Sāvatti- [PTS] 2. Jātiyā jāto-sīmu. 3. Atha khvāssā itthiyā sotthi ahosi- sīmu, machasaṃ 4. Vipphāritāya-sīmu.

[BJT Page 526] [\x 526/]

Yassa pāpaṃ kataṃ kammaṃ kusalena pithiyati,
So imaṃ lokaṃ pabhāseti abbhā muttova candimā.
Yo have daharo bhikkhu yuñjati buddhasāsane,
So imaṃ lokaṃ pabhāseti abbhā muttova candimā
Disā hi me dhammakathaṃ suṇantu
Disā hi me yuñjantu buddhasāsane,
Disā hi me te manuje1 bhajantu
Ye dhammamevādapayanti santo.
[PTS Page 105] [\q 105/]
Disā hi me khantivādānaṃ2 avirodhappasaṃsinaṃ,3
Suṇantu dhammaṃ kālena tañca anuvidhīyantu.
Na hi jātu so mamaṃ hiṃse aññaṃ vā pana kañcanaṃ4,
Pappuyya paramaṃ santiṃ rakkheyya tasathāvare.
Udakaṃ hi nayanti nettikā usukārā namayanti tejanaṃ
Dāruṃ namayanti tacchakā attānaṃ damayanti paṇḍitā.
Daṇḍeneke damayanti aṅkusehi kasāhi ca,
Adaṇḍena asatthena ahaṃ dantomhi tādinā.
Ahiṃsakoti me nāmaṃ hiṃsakassa pure sato,
Ajjāhaṃ saccanāmomhi na naṃ hiṃsāmi kañcanaṃ5.
Coro ahaṃ pure āsiṃ aṅgulimālo ti vissuto,
Vuyhamāno mahoghena buddhaṃ saraṇamāgamaṃ.
Lohitapāṇi pure āsiṃ aṅgulimāloti vissuto,
Saraṇāgamanaṃ passa bhavanetti samūhatā.
Tādisaṃ kammaṃ katvāna bahuṃ6 duggatigāminaṃ,
Phuṭṭho kammavipākena anaṇo bhuñjāmi bhojanaṃ.
Pamādamanuyuñjanti bālā dummedhino janā,
Appamādañca medhāvī dhanaṃ seṭṭhaṃva rakkhati.
Mā pamādamanuyuñjetha mā kāmaratisanthavaṃ,
Appamatto hi jhāyanto pappoti vipulaṃ sukhaṃ.

-------------------------

1. Manussā-sīmu- manujā -machasaṃ,syā, manusse-[PTS] 2. Khantivodāniṃ-syā 3. Avirodhappasaṃsanaṃ-syā, saṃsinaṃ-machasaṃ. 4. Kiñci naṃ-machasaṃ 5. Kañci naṃ - sīmu, [PTS] syā. Kiñci naṃ - machasaṃ 6. Bahu- [PTS]

[BJT Page 528] [\x 528/]

Sāgataṃ1 nāpagataṃ nayidaṃ dummantitaṃ mama,
Saṃvibhattesu2 dhammesu yaṃ seṭṭhaṃ tadupāgamaṃ.
Sāgataṃ1 nāpagataṃ nayidaṃ dummantitaṃ mama,
Tisso vijjā anuppattā kataṃ buddhassa sāsananti.

[PTS Page 106] [\q 106/]

Aṅgulimālasuttaṃ jaṭṭhaṃ.

-------------------------

1. Svāgata1-machasaṃ,syā 2. Suvibhattesu-syā paṭibhattesu [PTS]

**MAJJHIMA NIKĀYA II
*II. 4. 6. Aṅgulimālasuttaṃ*(86) To Aṅgulimāla**

I heard thus. At one time the Blessed One was living in the monastery offered by Anāthapiṇḍika in Jeta's grove in Sāvatthi. At that time in King Pasenadi Kosala's kingdom there was a robber named Aṅgulimāla. He was fierce, with bloody hands, engaged in killing living things without mercy. At that time he destroyed complete villages, complete hamlets and even the state. He killed humans to wear a garland of fingers. Then the Blessed One put on robes in the morning, taking bowl and robes entered Sāvatthi for alms. Going the alms round and returning from the alms round and after the meal was over, arranged the dwelling and taking bowl and robes, followed up the path to where Aṅgulimāla was. Cowherds, farmers and travellers seeing the Blessed One following up the path leading to where Aṅgulimāla was staying said. `Recluse do not fall to that path, there lives a robber named Aṅgulimāla, a fierce one with bloody hands, engaged in killing living things, without mercy. He has destroyed complete villages, complete hamlets and even states. He kills humans to wear a garland of fingers. O! recluse, even a band of ten, twenty, thirty forty, or even fifty people going along this path were killed by this robber Aṅgulimāla. When this was said the Blessed One went on, silently.

For the second time they said it and the Blessed One went on, silently and for the third time they said it and the Blessed One went on, silently.

The robber Aṅgulimāla saw the Blessed One coming in the distance and it occurred to him: Indeed it is wonderful, people come along this path in bands of ten, or twenty, or thirty, or forty, or fifty, they all got into my hands, this recluse comes all alone, without another, may be he thinks to overcome me. What if I kill this recluse? Then the robber Aṅgulimāla took out his sword and armour and fixed his bow and arrow and followed close behind Blessed One. The Blessed One performed such a psychic intention, that the robber Aṅgulimāla pursuing the Blessed One with all his strength would not reach the Blessed One. Then it occurred to the robber Aṅgulimāla: It is indeed wonderful, earlier, I could overtake a running elephant, a running horse, a moving chariot, here running with all my strength, I cannot reach up to this recluse. He stopped and called to the Blessed One. `Stop! Recluse stop!'

Aṅgulimāla, I have stopped. `Stop you too!' The Blessed One said.

Then it occurred to the robber Aṅgulimāla: These recluses, the sons of the Sakyas talk the truth and are established in the truth: Yet while walking why did he say, I have stopped and Aṅgulimāla you too stop! What if I ask about it from the recluse?' Then the robber Aṅgulimāla said this verse to the Blessed One.

“While going the recluse says `I have stopped, ` when I have stopped, he says I have

not stopped.

Recluse, explain this to me, how have you stopped and I have not stopped.

Aṅgulimāla I have stopped for good, giving up punishing living things.

You are not restrained towards living things, therefore I have stopped and you have

not.

After a long time did we meet a great sage in the great forest,

I will throw away demerit for good, hearing your words enjoined with the Teaching.

Then and there the robber threw away his weapons into the depths of the forest

Fell at the feet of the Blessed One and begged for the going forth,

The Blessed One, the sage with compassion, for the whole world, Gave him the going forth saying. `Come O! bhikkhu!' that was his going forth

Then the Blessed One with venerable Aṅgulimāla as the second monk went through the streets of Sāvatthi and arrived at the monastery offered by Anāthapiṇḍika in Jeta's grove. At that time at the entrance to the palace of king Pasenadi of Kosala was assembled a large gathering, making much noise: Lord, there is a robber Aṅgulimāla, in the kingdom. He is fierce, with bloody hands, has no compassion for living things, destroys, hamlets, villages and states. He killing humans collects fingers to wear as a garland round his neck. Lord he should be punished.

Then king Pasenadi of Kosala left his palace with about five hundred riders on horse back and approached the monastery. Went as far as could be reached in that conveyance and approached the Blessed One, on foot. Approaching the Blessed One worshipped and sat on a side. Then the Blessed One said thus to king Pasenadi of Kosala `Great king, has king Seniya Bimbisara of Magadha arisen against you, or has the Licchavis of Vesali arisen against you?' `No, venerable sir, neither king Seniya Bimbisara of Magadha has arisen against me, nor the Licchavis of vesali have arisen against me. Yet there is a robber in my kingdom, by the name Aṅgulimāla, fierce, bloody handed, without compassion for living things. He destroys hamlets, villages and states killing humans to collect fingers to wear a garland round his neck. Venerable sir, I cannot punish him.'

“Great king, if you see, Aṅgulimāla, with shaved head and beard, donning yellow clothes, gone forth homeless, abstaining from, destroying life, taking the not given, telling lies, partaking one meal a day, and virtuous. What would you do to him?'

“Venerable sir, I will get up from my seat on his arrival, prepare him a seat, invite him, arrange to provide the four requisites of life, robes, morsel food, dwellings and requisites when ill and provide him righteous protection. Yet venerable sir, how could such virtues come to evil doers, like him?'

At that time venerable Aṅgulimāla was seated close to the Blessed One, and the Blessed One stretched his right and said, to king Pasenadi of Kosala: Great king that is Aṅgulimāla.

Then king Pasenadi of Kosala was shivering with fear and his hairs stood on end. Then the Blssed One knowing that king Pasenadi of Kosala was shivering with fear and that his hairs were standing on end, said thus: Great king, do not fear, there is nothing to fear now. Then all that fear vanished from the king and approached venerable Aṅgulimāla and said. `Venerable sir, are you Aṅgulimāla?'

“Yes, great king, I'm Angulimāla.'

“Of what clan is the venerable one's father and of what clan is the venerable one's mother?'

“Great king, my father is Gagga and my mother Mantani'

“Venerable sir, venerable Gaggamantaniputta, take pleasure in the Dispensation, I will provide with the four requisites of life such as robes, morsel food dwellings and requisites when ill. At that time venerable Aṅgulimāla was a dependent on morsel food, a forest dweller, a rag robe wearer and confined to three robes. So venerable Aṅgulimāla said to king Pasenadi of Kosala. `Useless great king, my three robes are complete.'

Then king Pasenadi of Kosala approached the Blessed One worshipped, sat on a side and said. `Indeed, it is wonderful, how you tame, those that have to be tamed, how you appease those that are not appeased, how you make the not extinguished to extinguish. How you tame those that could not be tamed with stick or weapon, without stick or weapon. Now we have much work to do, we would go. Then king Pasenadi of Kosala getting up from his seat, worshipped and circumambulated the Blessed One, and went away.'

Then venerable Aṅgulimāla putting on robes in the morning and taking bowl and robes entered Sāvatthi for alms. When going the alms round in Sāvatthi in due order, saw a certain woman with the pains of childbirth, then it occurred to him, indeed beings are defiled. Then after the alms round and after the meal was over, venerable Aṅgulimāla approached the Blessed One worshipped, sat on a side and said to the Blessed One: `Venerable sir, when I was going for alms in due order, I saw a certain woman suffering from the pains of childbirth and it occurred to me: Indeed beings are defiled.'

“Then Aṅgulimāla go to Sāvatthi, approach that woman and tell her. `Sister, since my birth I have not destroyed a living thing knowingly, by that truth may you be well and may the one to be born be well.'

“Venerable sir, won't it be a lie told with awareness, I have destroyed many living things with awareness.'

Then Aṅgulimāla go to Sāvatthi and approach that woman and tell her. `Sister, since I was born in the noble birth I have not destroyed a living thing knowingly, by that truth may you be well and may the one to be born be well.'

Then venerable Aṅgulimāla agreed went to Sāvatthi approached that woman and told her. `Sister, since I was born in the noble birth I have not destroyed a living thing knowingly, by that truth may you be well and may the one to be born be well,' Then she got well and the child was also well. Then Aṅgulimāla withdrawn from the crowd, secluded and diligent for dispelling abode and before long for whatever reason sons of clansmen rightfully leave the household and become homeless, that noble end of the holy life he here and now knowing realised and abode. He knew, birth is destroyed, the holy life is lived, what should be done is done. There is nothing more to wish.

Then venerable Aṅgulimāla putting on robes in the morning and taking bowl and robes went the alms round in Sāvatthi. Then if a clod was thrown at anybody else, it hit venerable Aṅgulimāla. If a stick was thrown at anybody else, it hit venerable Aṅgulimāla. If a stone was thrown, it hit venerable Aṅgulimāla. Venerable Aṅgulimāla would come to the Blessed One with a split head and blood dripping, with the bowl broken and with robes torn. The Blessed One seeing venerable Aṅgulimāla approaching in the disstance would say: Brahmin, endure that, on account of the results of your actions you would have been reaping results for many years, for many hundreds of years, for many thousands of years in hell. Brahmin, bear the results of your actions here and now.

Venerable Aṅgulimāla experienced the pleasantness of release in his seclusion, and then these verses occurred to him:

“The negligent one became diligent,
and illuminates the world like the moon freed from clouds.

When his merit covers up the demerit,
he illuminates the world like the moon freed from clouds.

The young bhikkhu yoked to the Dispensation of the Blessed One
illuminates the world like the moon freed from clouds.

My enemies, listen to the Teaching,
be yoked to the Dispensation of the Blessed One.

My enemies, associate friends who show the appeasing Teaching.

My enemies, with patience and aversion dispelled, listen to the Teaching
and live according to the Teaching,

Do not hurt me or anybody else for any reason,
attain to the highest appeasement and protect the firm and the infirm.

Irrigators lead water,
fletchers bend arrows,
the carpenter bends wood
and the wise tame the self.

Some are tamed with a stick, or hook or whip,
I was tamed without a stick or weapon, by a such like one.

Earlier when I was a hurter, my name was non-hurter,
now am true to my name I do not hurt anyone.

Earlier I was a robber known as Aṅgulimāla,
and was carried away by the surge of the refuge in the enlightenment.

Earlier I was known as Aṅgulimāla with bloody hands,
look at the refuge the leader of being is destroyed.

Having done many actions leading to birth in hell,
touched by the results of actions I partake food without a debt.

Fools are yoked to negligence, the wise protect diligence as the highest wealth.
Do not be yoked to negligence and sensual pleasures;
concentrate diligently to attain pleasantness.

Go to increase, not to decrease,
this is good advice,
reach the highest of the analytical knowledges.

Go to increase, not to decrease,
this is good advice of mine,
I have attained the three knowledges
and done the dispensation of the Enlightened One.

*End of the Aṅgulimāla Sutta.*